



■ 연구원 주요일정

- 04월 10일(月) : 주간회의(14시)
- 04월 11일(火) : 함대·석산마을 마을조사사업 회의(11시)
- 04월 12일(水) : 야간강좌(18시 30분)
- 04월 13일(木) : 법인업무보고(9시)

■ 연구원 소식

○ 문형국 이사, 정경명 이사, 이종필 회원 방문

: 지난 4월 7일(금), 문형국 이사, 정경명 이사, 이종필 회원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께서 연구원 시설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소개를 하였습니다. 유명봉 회원께서 함께하시며 직접 쓰신 <천년암자에 오르다>를 전해주셨습니다.



○ 연구원 춘계 답사

: 우리연구원이 기획한 문화답사 프로그램을 과 전주대 K-History 2H 특성화사업단과 함께 4월 8일(토)에 진행되었습니다. 전주대 사학과 학부생과 연구원 회원 등 모두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에 대한 김천식 회원의 특강이 있었으며, 섬진강 어류생태관과 구례 오일장, 방호정, 운흥정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남도 답사를 통해 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 3차 운영위원회 실시(4월 7일)

- 날짜 : 2017.04.07(金) 오후 5시
- 장소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의실
- 안건 : 법인차량 sharing 관련 건, 해외역사탐방 참가비 관련 건
- 내용 : 2017년 3차 운영위원회가 4월 7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법인차량 sharing과 해외역사탐방 참가비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벌였습니다. 1종 보통 면허 이상을 소지한 연구원 회원은 필요 시 연구원 차량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역사탐방 참가비는 작년처럼 회원의 경우 총액의 10%를 할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구원 신규 회원 가입** : 이번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 한 분이 생겼습니다.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미진**" 님 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통해 자주 모시겠습니다.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 **지역종교문화답사 안내(4월 22일)**

: 우리연구원 김천식 전임연구원이 안내하는 종교문화답사가 4월 2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정은 오전 9시 전주시 삼천동 해성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김제시 금산면 금산교회까지 도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적지인 금산교회는 1908년 테이트 선교사가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건립한 건물로 전북문화재자료 136호이기도 합니다. 눈비가 와도 답사는 변동 없이 진행할 예정이오며 참가희망자는 도시락을 지참하신 후 4월 22일 9시까지 해성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문의는 연구원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 **전주성의 도시구조 답사 안내(4월 22일)**

: 김천식 박사와 함께 걷는 종교문화답사가 이른 아침이라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같은 날 14시에 시작되는 전주시내 답사에 참석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전주객사, 전라감영터, 풍남문을 따라 걸으며 전주성의 도시구조에 대한 홍성덕 부원장의 안내가 함께 곁들여질 예정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4월 14일까지 신청바랍니다.

○ **러시아 해외역사탐방 안내**

: 작년에 이어 제2차 해외역사탐방이 이어집니다. 오는 7월 1일~9일 사이에 5박 6일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차 탐방의 종착지였던 하바로브스크에서 시작하는 올해 일정은 자유시 참변의 아픔이 있는 스보보드니(옛 이름 알렉세예프스크)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32분만 모실 수 있으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한국고전학연구소,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안내**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야간강좌는 매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강의는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한지산업관 202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독 교재로는 『호남의사열전』을 강독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30분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竹里館(죽리관)	대숲 안의 집
獨坐幽篁裡(독좌유황리)	깊은 대숲에 홀로 앉아
彈琴復長嘯(탄금부장소)	거문고 타며 길게 부는 휘파람
深林人不知(심림인부지)	깊은 숲이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明月來相照(명월래상조)	밝은 달은 찾아와 비추인다.

■ 작자소개

- 왕유(王維, 699~759). 당나라 때 저명한 시인이며, 화가로 시, 음악,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고, 남종화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남종화는 문인화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화풍으로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여러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표현양식을 채택하였으나, 산수화를 발달시킨 최초의 사람 중의 하나로 특히 유명하다. 그는 생존 시에 설경산수화로 유명했으며, 가장 유명한 작품은 <망천도>라는 화권이다. 이 그림은 전해지지 않으나, 후에 제작된 많은 모사품으로 대강의 구도는 보존되었다. 또한 그는 자연의 정치와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노래한 시인으로 이백(701~762), 두보(712~770) 등의 유명한 당대 시인들과 함께 서정시 형식을 완성한 시인으로 손꼽힌다.

■ 감 상

- <죽리관(竹里館)>은 왕유(王維) 연작시 <<망천집(輞川集)>> 17번째 작품이다. 왕유는 만년에 섬서(陝西)성 남전(藍田)현 경내의 망천(輞川)에 은거했다. 그는 초당(初唐) 시인 송지문(宋之門)의 별장 망천별서(輞川別墅)를 인수해 개조한 뒤 거처로 삼았다. 인근에 화자강(華子岡)·죽리관(竹里館) 등의 절경이 있었다. 그는 망천장(輞川莊) 대나무 숲속에 별채를 짓고 이름을 죽리관(竹里館)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은일자연 속에서 내면의 고독에 침잠하고 있는 왕유의 모습이 드러난다. 적막 속에 샘솟는 시심(詩心)을 악상(樂想)으로, 화의(畫意)로 변주시키는 내밀한 고독이 달빛으로 찾아들었다.

■ 역사속의 오늘

○ 옳지 못한 복수 - 1954년 4월 16일

4·3을 배경으로 한 영화 <지슬>에서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괴물 같은 이가 등장한다.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었지만 무력을 행사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치 듯 대하던 그들은 서북청년단이었다. 서북이라는 뜻은 관서와 관북을 통틀어 말한 것으로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등지에서 북한 정권을 피해 월남한 이들이 만든 조직이 바로 그것이었다.

서북청년단은 1946년 11월 30일 지금도 남아 있는 종로 YMCA 회관 강당에서 그 깃발을 처음으로 올렸다. 그들이 그 실력을 선보였던 것은 1947년 3월 1일 전국 각지의 3·1절 기념식장에서였다. 이들은 좌익 계열의 기념식을 습격하여 잔인한 테러를 일으키며 그 이름을 이 땅에 날리기 시작했다. 1949년 6월 경교장에서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도 군인이면서 서북청년단 회원이었다.

4·3 당시 제주도를 휩쓸던 이 서북청년단의 사업부장이 김성주다. 평안도가 고향으로 꽤 유복하게 살았다는 그는 해방 이후 일가족과 함께 월남했다.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던 임대식 박사에 따르면 그는 이재(理財)에 밝은 눈과 귀를 지녔던 것으로 짐작된다. **‘(서북청년단은) 배급표 과다할당이란 소박한 단계에서 적산물자 불하라는 좀 더 과감한 대규모의 협잡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것이다. 서청 간부들은 이러한 협잡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미 군정청을 ‘건너마을 과방(果房)’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협잡에 김성주(사업부장, 섭외부장)가 큰 역할을 했다. 김성주는 “미군 장교와도 개별적인 선을 대어 소위 보급작전에서 많은 수확을 얻어냈다.” (임대식 “제주 4-3항쟁과 우익 청년단” <제주 4-3 연구> 215쪽)**

그는 서북청년단 부위원장까지 올라가 이승만의 수족 노릇을 했으나 청년단의 분화와 이합집산 과정에서 팽을 당하고 말았다. 서북청년단 위원장이었고 한국전쟁 이후 교통부장관을 지냈던 문봉제를 비롯한 주류와의 세력 다툼에서 밀린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김성주는 38선을 넘어 복진한 미군과 함께 북으로 들어가 미군정이 임명한 평안남도지사가 되었다. 이승만이 파견한 사람들은 김성주와 미군에게 쫓겨나 남쪽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는 이승만이 평양 시민 앞에 연설하는데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 ‘종던 시절’도 중공군이 참전함에 따라 막을 내리게 되었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김성주는 1952년 8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정적인 조봉암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그간의 행적을 보면 천만부당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봉암 선거본부의 총무를 맡았던 신창균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김성주는 조봉암 아래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서북청년단에 있으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한 것을 우리도 알고 있었지요. 김구 암살에 협력하고 단정수립·단독선거에서 무력을 행사했으며 이승만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자가 조봉암을 도우러 온다니 우리에게 덧칠해진 공산당 색깔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사무차장으로 임명하게 되었어요.” (한겨레 신문 1991년 3월 29일 7면 권력 암투 깔려 몰래 처형된 ‘정치하수인’ 中)

이로써 김성주는 이승만과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도 말았다.

1953년 여름 헌병대에 의해 소리 소문 없이 연행된 그는 “정부시책에 불만을 품고 사회민주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이승만 대통령 살해음모를 꾸민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10개월 동안 11차례의 공판을 받고 7년 징역을 구형받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954년 4월 16일 밤, 서울 신당동에 있던 헌병사령관 원용덕의 집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이날 저녁 형무소에서 끌려나온 김성주는 원용덕의 운전병이었던 임정수 상사에 의해 총살되고 시체는 곁에 있던 방공호 속에 던져졌다. 1954년 4월 17일 예정되었던 선고 공판장에 간 가족들은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통보만 받고 돌아섰다. 이를 후 석간 신문에 김성주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국방부 발표가 조그맣게 실렸다.

전쟁 직후인데다 이승만이 사사오입 개헌 이후 정적들에게 사법살인을 지시하던 때, 그의 가족들은 시체라도 돌려주라고 아우성쳤지만 소리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변호인 없는 사형선고’와 ‘입회인 없는 사형집행’이라는 ‘의문사’로 남겨질 뻔한 이 사건은 1955년 국회에 날아온 투서 한 장으로 발각 뒤집혔다. 김성주가 원용덕의 부관에게 사살되었다는 내용이 실린 투서가 날아들고 김성주의 가족이 다시 “유골이라도 돌려달라”는 탄원을 제출하자 유진산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원용덕은 조사에 불응했다. 여기다 더해 여당은 지속적인 방해공작을 펼쳤고 결국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같은 해 10월 보고서 한 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위원회는 해산되었다. 그나마 이 보고서도 여당의 의견과 야당의 의견이 동시에 게재된 채 결론이 나지 않은 요상한 모양새였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4월 혁명으로 막을 내리자 장막에 가려졌던 내용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김성주의 가족이 원용덕을 비롯한 군 장성을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하자 재조사가 이뤄졌다. 이때 1954년 당시 원용덕에게 전해진 이승만의 친필 영문 편지가 드러났다.

“김성주는 내가 임명한 문봉제를 해치려는 자이며 손원일 국방장관에게도 말했으니 국형에 처하라...너는 잔말 말고 즉시 내 명령대로 처단하라”(한겨레 신문 같은 기사 中)

이승만이 자신의 정적과 배신자에게 얼마나 무자비했는가를 증명하는 편지를 어찌하여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이로 인해 원용덕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곧이어 일어난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원용덕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그 이후는 짐작하는 대로이다. 사건 관련자는 모두 천수를 누리며 대한민국에서 호의호식했다. 김성주는 총살 이후 해방 이후 '청년운동가'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서북청년단 부단장으로 복무한 그의 활동이 '청년운동'이란 단어에 걸 맞는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각자가 할 일이다.

이승만이 수하를 시켜 죽이게 한 정적들은 분명 복수심의 결과일 것이다. 한겨레 안수찬 기자는 “정의는 복수를 통해 완성된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그가 말한 정의는 개인적이며 임의적인 응징이 아니라 법적 판결과 정치적 선택의 수단인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구현되는 복수에 기초한 정의이다. 이승만의 복수가 얼마나 야만적인 범죄인지는 더 말할 나위없다. 덧붙여 노래마저 빼앗긴 제주 4·3사건 피해자와 국가보상금을 다시 토해내라는 판결을 받은 인혁당 피해자, 5월 광주를 명백한 폭동이라는 모씨의 회고록과 마주한 이들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합당한 복수는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

우리는 오늘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역사의 죄인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 수많은 의문사와 억울한 죽음이 묻혀있는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화해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무마'한 채 다시 쳇바퀴에 올라탈 것인가.

선택은 분명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는 다음 세대의 운명일 것이다.

■ 도농상생

♣ 금싸락 누룽지



김제평야의 질 좋은 쌀과 현미,보리로 만든 - 금싸락누룽지

드 넓은 김제평야에서 자란 간척지 햅쌀과 현미, 보리로 정성껏 만들기에 더욱 고소한 맛과 함께 건강을 가득 담은 바삭하고 고소한 영양식입니다.

♣ **금사락 누룽지 판매 가격**

종류	규격	가격		비고
		정상가	할인가	
금사락 누룽지	150g*10봉	23,000	21,000	
	150g*20봉	44,000	42,000	
	200g*10봉	27,000	24,000	
	200g*20봉	52,000	48,000	
	3kg	33,000	30,000	
	750g*2봉	19,800	18,000	
	750g*4봉	39,600	36,000	
	750g*6봉	59,400	54,000	
금사락 현미 누룽지	150g*10봉	28,000	25,000	

※ 연구원 심범식 회원이 직접 생산하는 맛있는 누룽지입니다. 설 이후에도 연구원 회원 들께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택배비 : 3,000원(40,000원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주문은 심범식 회원(010-5493-505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가족애(!!!)를 보인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 비봉골 우리콩두부, 곶감, 오미자, 쌈무, 유정란 판매

: 우리 연구원 회원이신 조한승님께서 완주군 비봉면에서 우리콩두부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시며 곶감, 오미자, 쌈무, 유정란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현재 완주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중이기도 합니다만 멀리 계셔서 찾기 어려운 분께는 택배발송도 가능하시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조한승 회원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조한승: 010-9098-6693, 유동일: 010-2045-8255)

- 상 품 정 보 -

연번	품 목	가 격	비 고
1	우리 콩 두 부	* 1모 : 3,500원	조한승
2	오미자액기스	* 1리터 : 25,000원	조한승
3	곶 감	* 특상품 : 120,000원 * 보 통 : 30,000원(50~60개) * 보 통 : 10,000원(15~20개)	조한승
4	쌈 무	* 1개 : 2,000원	조한승
5	유정란	* 1판 : 11,000원	유동일

※ 생산품 모두 직접 재배하고 비봉에서 가공하는 상품입니다.

※ 유정란은 조한승 회원과 지인인 유동일 님께서 완주 비봉에서 유기농법으로 기르는 닭이 낳은 달걀로 20개를 꼼꼼하게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 조한승 회원이 운영하고 계시는 비봉골 우리콩두부 간판입니다!

오른쪽이 조한승 회원, 가운데 분이 유정란을 판매하시는 유동일 님 이십니다.



☞ 유동일 님께서 판매하시는 유정란입니다.

♣ 연구원 협약기관 사회적기업 나눔푸드 홍삼 판매

♠ 구매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나눔푸드” 에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주문하실 때, 반드시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이라고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연 락 처 : 063-433-7017
- 홈페이지 : <http://www.nanumfood.or.kr> -> 행복쇼핑몰

※ 회원이 주문할 경우 총액의 10%를 할인하여 판매하며, 총매출의 10%는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종 류	가 격	비 고
나눔미 홍삼 액기스 (30포*80mg)	50,000원	연구원 회원가는 10% 할인된 금액입니다.
나눔미 홍삼 액기스 (60포*80mg)	99,000원	
나눔미 순수홍삼정 (1병*100g)	55,000원	
나눔미 순수홍삼정 (3병*80g)	130,000원	
나눔미 홍삼절편 (20g*10개)	45,000원	
나눔미 순수홍삼액 (30포*80mg)	39,000원	



<나누미 홍삼 액기스>

- 50,000원 (80mg*30포)
- 99,000원 (80mg*60포)



<나누미 순수홍삼정>

- 55,000원 (100g*1병)
- 130,000원 (80g*3병)



<나누미 홍삼절편>

- 45,000원 (20g*10포)



<나누미 순수홍삼액>

- 39,000원 (80mg*30포)